



광주 연화사 부설 반야유치원 원아들은 9월 21일 전남대에서 현혈과 골수기증을 호소하는 생명나눔 캠페인을 벌였다.

"친구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우리도 커서 헌혈할 거예요." 9월 21일, 축제로 캠퍼스가 들쭉거리는 전남대 백도광장 앞에서 난데없이 유치원생 20여명이 직접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 형, 누나들에게 골수기증과 헌혈을 호소했다. 오전 내내 캠페인에 참가한 김화상(6) 어린이는 "백혈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도와달라고 소리쳐 목이 쉬었지만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친구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했다. 광주 생명나눔 행사에 어린이들이 함께 한 것은 이날뿐이 아니다. 9월 7일 조선대학교에서 펼쳐진 캠페인에도 선덕사 부설 유아학교 어린이 20여명이 함께했다.

다. 나눔 저금통을 분양해 소아암 환우 치료지원을 하던 아이들이 거리까지 진출한 것이다. 캠페인이 시작되면 유치원은 원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한 현장교육 일환으로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캠페인에 참여한다.

광주전남 생명나눔

골수기증 캠페인에

반야유치원생들 동참

이처럼 광주 생명나눔과 불교 유치원 원생들이 함께 캠페인에 나선 것은 3년 전부터. 광주 생명나눔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에 연화유치원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

다. 광주 생명나눔 윤예중 사무국장은 "골수기증 희망자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의 성원으로 9월 한달간 펼친 캠페인에서는 400여명이 참가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생명나눔은 장기기증, 화장문화 정착, 헬스판 공여사업, 투병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모집하고있다. 후원문의 062-234-6602, 농협 617-01-146862 예금주: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 이준엽 기자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1)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⑥ 지계 바라밀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가 마련한 재가논강이 9월 15일 '지계 바라밀'을 끝으로 회향했다. 이번 논강은 육바라밀을 통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점검하는 자리였으며, 재가자들이 직접 논주와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논강은 송광사 율원장 지원 스님(사진)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원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받고 논강을 회향했다.

“계는 구속이 아니라 해탈 수행법”

여러분은 행복하길 원하시죠. 계(戒)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구속되거나 감히거나 묶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이끄는 계를 '해탈 수행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는 구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는 '구속'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계 의식문에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한다'더라도 계를 받는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알게 되면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계속 반복하게 되지만,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는 근본적으로 선한 행위, 선하게 산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 때, 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곳 원각사에는 스님, 청신사, 청신녀 등 많은 대중이 살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규정을 '계'라 하고,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벌주는 것을 '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는 청정하게 살라는 구속력보다 권유의 뜻이 있고, 율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를 잘 지키는 방법으로 매일 칠불통계(七佛通戒) 봉독을 권합니다.

'갓가지 나뭇잎을 꾀어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나. 그리하여 내마음 청정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치신 법이래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계율을 잘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으로서 아직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기, 파리 등을 잡은 뒤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하고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이지 않으면 더 좋지만, 너무 죄의식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한 마리를 죽였으면 열 마리를 살리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심으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계율을 부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계율은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계율을 죽으면 불법도 죽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계는 고통의 수렁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밭줄과 같고,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를 지키는 것은 옷이 몸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사되고 아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계율은 곧 '전력수행'입니다. 자기마음이 어디로 가는 지 잘 관찰하면 불행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수행입니다.

◆질의 응답
▲직업상 술집을 운영하거나 도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살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 '술을 팔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만큼 술을 권하거나 파는 것이 계율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계율은 선 한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율에 반하는 업은 서서히 바꾸어 야한다.

정리:이준엽 기자

청주 유등문화제 성황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9월 15일 무심천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심천 유등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는 연합회가 제작한 전통등을 터널 형식으로 꾸민 행사장에서 공연, 직지대법회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청주시민들도 직지목판을 직접 인경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민속공연,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화제의 하이라이트는 유등제. 아들이 깔린 오후 7시, 연합합창단의 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환하게 불을 밝힌 전통등을 띄우며 청주시민과 불자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아 기도했다.

각의 스님은 "앞으로 불자들이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축제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불갑사, 전통 예수재의식 재현

조계종 초대종정 만암 스님에 이어 목담-수산 스님으로 전해오는 생전예수재 의식이 재현됐다.

영광 불갑사(주지 만담)는 윤 7월을 맞아 9월 16일 수산 스님(고불총림 방장)이 증명하는 가운데 생전예수사왕지재를 봉행했다. 이날 예수재는 60여명의 스님들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통의식에 따라 진행했다.

예수재는 불갑사 입구 부도전에서 부처님을 향한 연을 경내로 이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령-운수상단-사자청-성위청에 이어 법단에 오른 대홍사 조실 천은 스님은 "예수재는 과거 미래 금생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지어온 업장을 뒤는 성스러운 자리이다"며 "참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후 의식에서는 명부도 물품을 나르는 말과 마부들에게 공양올리는 '마기단'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불갑사 주지 만담 스님은 "예수재뿐 아니라 사라져가는 의식법회를 재현해 불교 전통의식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11년만에 야외법석에 모셔진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괘불탱.



13년만에 돌아온 백양사 아미타회상도 고불식.

화엄사 국보 탱화 · 백양사 아미타회상도

10여년만에 모습 공개

탱화로는 유일한 국보와 도난당한 불화가 10여년만에 동시에 모습을 나타냈다.

화엄사(주지 종삼)는 9월 10일 생전예수재 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국보 301호 영산회 괘불탱을 내걸고 법회를 봉행했다. 1995년 화엄사 서오층석탑 해체보수과정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이후 11년 만이다. 조선 효종 4년(1653)에 조성된 이 괘

불은 11.95x7.76m 크기로, 불 보살의 원만한 상호가 아직도 생생한 색채로 남아 살아있는 듯 하다.

백양사(주지 두백)도 9월 17일 대웅전에서, 도난당한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를 13년만에 내걸었다. 백양사는 다시 돌아온 불화 친견에 앞서 점안과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어 아미타 부처님이 증명하는 가운데 가사불사회향 및 보살계 수계식을 가졌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구 : (010)3069-3170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베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외국어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톤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삼베)	원단기공수집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기)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외국어 시험연구원 O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제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덩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엔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 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 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 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집안 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